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1. 문학과 삶

(1) 문학의 기능과 가치

- *봄눈 오는 밤 (47문제)-----1쪽
- *19세 (46문제)-----23쪽
- *풀 비린내에 대하여 (20문제)-----56쪽

(2)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 *쉽게 씌어진 시 (45문제)-----72쪽
- *보리타작 (40문제)-----95쪽
-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5문제)-----112쪽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 *산유화 (52문제)-----139쪽
- *속미인곡 (55문제)-----163쪽
- *유자소전 (39문제)-----195쪽

(2) 문학과 인접 분야, 문학과 매체

-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25문제)-----225쪽
- *뿌리 깊은 나무 (22문제)-----242쪽

◆빠른 전체 정답-----265쪽

◆해설-----268쪽

교재 버전: 2021.02.01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산유화” 문법 명칭

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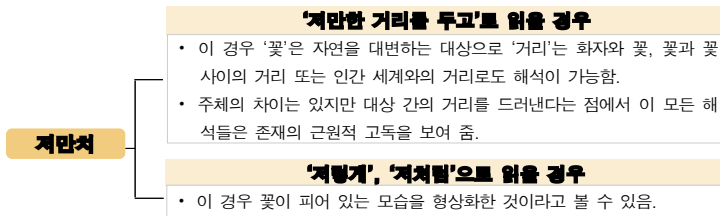
간체	서정시, 자유시	상제	민요적, 전통적, 관조적
제제	산에 피어 있는 꽃	주제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대자연의 섭리
특징	① 1연과 4연이 내용과 구조 면에서 서로 대응함.(수미상관) ② ‘-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각운의 효과를 얻고, 감정의 절제를 보여줌. ③ 3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함.		
구성	[1연] 산에 피는 꽃(존재의 생성) [2연]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존재의 고독) [3연] 산에서 사는 작은 새(존재의 교감) [4연] 산에 지는 꽃(존재의 소멸)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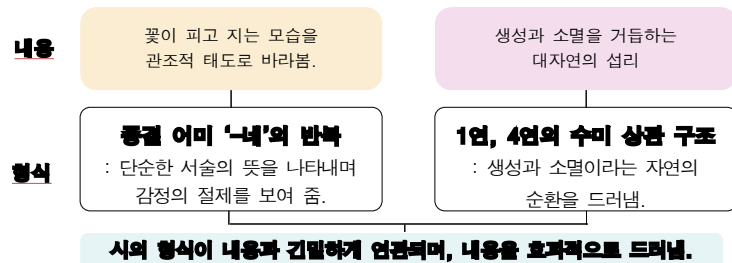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산**: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자연의 세계를 상징함.
- **꽃**: ①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고독한 존재 ②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함.
- **새**: ①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 ②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
- **갈 봄 여름 없이**: ① ‘갈’은 ‘가을’을 줄여 표현한 것임. ②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갈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하여 시적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함.
-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 살지만 꽃과 저만치 떨어져 있는 존재임.
→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함.

■ ‘저만치’의 다양한 해석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1연 산에는 꽃 피네 네 □ '-네'라는 종결 어미 반복
→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 태도를 보여 줌.
 공간적 배경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갈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하여
 '가을'을 줄여 표현함. 시적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함.
 꽃이 피네

▶ 1연: 산에 피는 꽃(존재의 생성)

2연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2연: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존재의 고독)

- ① '저만한 거리를 두고' → 존재의 근원적 고독
- ② '저렇게', '저처럼' → 꽃이 피어 있는 모습

3연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이 어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산에서

사노라네 네

▶ 3연: 산에서 사는 작은 새(존재의 교감)

4연 (산에는 꽃 지네) () 1연의 '피네'를 '지네'로 바꾸어 동일하게 반복함.
(수미 상관의 구조)

꽃이 지네

→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며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함.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네

▶ 4연: 산에 지는 꽃(존재의 소멸)

<산유화>는 걸로 보기에 자연 현상을 노래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1** 그러나 이 시는 피었다 지고 졌다가 다시 피는 꽃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한 작품. 저만치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꽃에 비유하여 노래한 작품.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체념을 '저만치'로써 드러낸 작품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 시의 세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김소월은 시의 형식에 신경을 많이 썼던 시인인데 <산유화>가 특히 이를 잘 보여 준다. **2**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는 위와 아래가 대칭되도록 연과 행이 구성되어 있고, 같은 말의 반복 사용과 전통적인 3음보 율격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옆으로 누이면 시의 형태가 산 모양이 되는데, 이를 시인이 의도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1 이 시는 피었다 지고 졌다가 다시 ...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2연의 '저만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산유화>의 해석이 달라진다. '저만치'를 '저와 같이, 저렇게'와 같은 꽃의 상태로 읽을 경우, 이 시는 꽃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저만치'를 꽃과 화자의 거리로 읽을 경우, 화자는 인간 세계에 속한 유한한 존재를, 꽃은 인간이 동경하는 무한한 자연에 해당한다. 꽃을 화자의 감정이 어입된 존재로 볼 경우 꽃과 화자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독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산유화>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2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는 위와 아래가 대칭되도록 연과 행이 구성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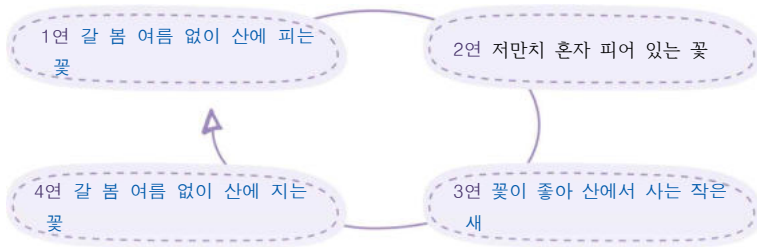
<산유화>는 1연과 4연이 수미 상관의 구조를 이룸으로써 형태상의 균제미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 원리를 보여 주는 효과를 자아낸다.

“산유화” 학습 활동 순서

1. 시를 완전히 소리 내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보자.

- 1 4연의 변형된 수미 상관 구조(‘꽃이 피네’, ‘꽃이 지네’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 2연의 ‘산에 / 산에’와 같은 시구의 반복
- 종결 어미 ‘-네’의 반복
- ‘산에는V꽃 피네V꽃이 피네V’와 같은 3음보의 반복

2. 이 시의 사상 전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3. 모둠원들과 함께 이 시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1) 시에는 같은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그 종결 어미에서 연상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시는 각 연에서 종결 어미 ‘-네’가 반복되고 있다. ‘-네’는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 어미로, 이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화자의 정서나 의견이 배제된다. 이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2) 2연의 행 배열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자.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 / 산에’와 같이 행을 나눌 경우에는 산과 산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산과 산 그리고 산과 꽃 사이의 거리감이 강조되었다면, ‘산에 산에’를 한 행에 배치한 경우에는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

(3) 다음은 이 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시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지어 찾아보자.

<산유화>에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상 특징에 따라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1연과 4연은 ‘피네’와 ‘지네’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시구의 통사 구조가 동일한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4. **형태 면에서 <산유화>와 유사한 점이 있는 시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선운사에서 _ 최영미

꽃이	멀리서 웃는 그대여
피는 건 힘들어도	산 넘어가는 그대여
지는 건 잠깐이더군	
	꽃이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지는 건 쉬워도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있는 건 한참이더군
아주 잠깐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 잔치는 끝났다》

작품 기법

- **길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꽃의 피고 짐을 보며 깨닫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 **해제:** 시적 화자는 꽃의 피고 짐을 사랑의 시작과 이별에 대응하며,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사랑의 시작과 이별도 한순간이었지만, 꽃이 쉽게 지는 것과 달리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은 더디고 어려운 일임을 말하고 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는 시이다.

(1) < >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관해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화자는 3연에서 이별의 아픔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5연에서 이별한 대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2)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관계에 주목하여 두 시의 형식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보자.

예시 답안 <산유화>에서 1연과 4연은 ‘피네’와 ‘지네’만 다를 뿐 서로 대응하며 수미 상관의 구조를 이룬다. <선운사에서>의 1연 ‘꽃이 / 피는 건 힘들어도 / 지는 건 잠깐이더군’과 5연 ‘꽃이 / 지는 건 쉬워도 / 잊는 건 한참이더군 / 영영 한참이더군’ 또한 서로 대응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이 두 시가 변형된 수미 상관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두 시의 형식의 유사점으로 볼 수 있다.

(3) (2)에서 파악한 이 시의 형태상 특징이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책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예시 답안 <산유화>에서 수미 상관의 구조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의 연속성을 보여 줌으로써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드러낸다. <선운사에서>에서 수미 상관의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대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산유화” 두원 읽기

Ⅰ 봄 여름 없이

‘갈’은 ‘가을’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갈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하여 시적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Ⅱ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저만치’를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읽을 경우,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꽃과 꽃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는 꽃이 인간 세계와 거리를 두고 외롭게 피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꽃은 자연을 대변한다.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 간의 거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모든 해석은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보여 준다.

한편 ‘저만치’를 ‘저렇게’, ‘저처럼’으로 읽을 경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작은 새’는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상으로, 화자 역시 고독한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꽃이 지네

1연의 ‘피네’를 ‘지네’로 바꾸어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며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파산 읽기

● 시형과 리듬 - <산유화>의 예

시를 읽으면서 그 리듬을 지각한다는 것은, 시인에 의해서 파악된 세계의 상상적 질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시의 리듬을 통해서 시인이 세계와 대상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질서화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과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김소월의 <산유화>가 보여 주는 리듬은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중략>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 주는 이 시의 리듬은 독자로 하여금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우주의 순환적 질서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계절의 순환과 “갈 봄 여름 없이” 피고 지는 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산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바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자족적인 세계이다. 하지만 이 세계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세계, ‘저만치’ 떨어져 있는 세계이다. 김동리는 일찍이 ‘저만치’에 내장된 거리감을 ‘청산(靑山)과의 거리’라고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끝없이 가 닿고자 하는 욕망을 발생시키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의 순환적 리듬은 계절(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욕망과 좌절의 무한성 또한 함께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 <산유화>의 구조와 그 의미

1연과 4연에서 각각 꽃의 핼과 짐을 노래하고 있는데, 피다-지다라는 어휘만이 바뀌고 다른 시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개화가 낙화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임을 간명하게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낙화는 다시 개화로 이어질 것이다. 변형을 포함한 수미 상관식 구성은, 생성과 소멸의 순환 원리를 암시하고 있다. 2, 3연에서는 그러한 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꽃의 존재 양식이 드러난다.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을 뿐이고, 그러한 꽃을 좋아하는 새가 울고 있지만 꽃은 그마저에도 무심하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지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1. <보기>의 밑줄 친 요소에 근거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품'이라고 고도 하는데, 이것은 문학 작품을 이루고 있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문학 작품의 내용 요소에는 사건, 배경, 주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의 가치관 등이 있고, 형식 요소에는 구성, 문체, 시점, 연과 행, 운율, 표현 기법 등이 있다.

- ① 처음과 끝이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 ② 3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 ③ 시적 화자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다.
- ④ 각 연에서 종결 어미 '-네'가 반복되어 각운의 효과를 얻는다.
- ⑤ '가을'을 '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적 간결성과 음악성을 확보한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렇게'로 해석될 경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저렇게'로 해석될 경우 존재와 대상의 교감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될 경우 이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보여 준다.
- ④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될 경우 '꽃'은 자연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거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 ⑤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될 경우 '거리'는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3. 위 시와 <보기> 시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꽃이 / 피는 건 힘들어도 /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잇는 것 또한 그렇게 /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 지는 건 쉬워도 / 잇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 ① 위 시와 <보기> 시는 모두 변형된 수미상관 수조를 갖는다.
- ② <보기> 시는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다.
- ③ 위 시에서 수미 상관의 구조는 자연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감정을 드러낸다.
- ④ <보기> 시의 수미 상관의 구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잇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 ⑤ 위 시와 <보기> 시는 종결어미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을 '갈'로 줄여 표현한 시적허용을 통해 간결성과 운율감을 형성한다.
- ② 2연의 행 배열은 산과 산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우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강조한다.
- ③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의 모습을 통해 존재가 지나는 근원적인 고독감을 드러낸다.
- ④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꽃이 피고 지는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원리를 보여준다.
- ⑤ '산에는√꽃 피네√꽃이 피네'와 같은 3음보를 한 행에 배열하거나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창동고등학교 (서울)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나타나 있다.
- ③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어를 반복하여 감정을 격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꽃이 피고 지는 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6. <보기>는 위 시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시의 구절 중 (㉠)는 시의 간결성과 운율을 고려한 표현으로 일상적 언어에 변화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감정을 (㉡)에 이입하여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7. 위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건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 최영미, <선운사에서>

- ① 위 시와 <보기> 모두 수미 상관의 구조를 이룬다.
- ② <보기>와 달리 위 시에는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위 시와 <보기> 모두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위 시와 <보기> 모두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가 같다.
- ⑤ 위 시와 달리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인천고등학교 (인천)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에'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의도적인 행 바꿈을 통해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각 행의 길이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시적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민요적이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속미인곡” 문덕 명민

경리

간체	가사(서정가사)	성격	서정적, 충신연주지사
제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연군지정)	주제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염원
특징	①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창작됨. ② 두 여인의 문답으로 구성됨. ③ 두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순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임. ④ 양반 가사임에도 한자어 표현과 고사(故事)가 거의 사용되지 않음.		
구성	서사(1-13행)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한 두 여인(갑녀와 을녀)의 문답	
	본사(14-42행)	이별한 임에 대한 을녀의 한결같은 염려와 애절한 그리움	
	결사(43-48행)	죽어서라도 임에게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핵심 내용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구름, 안개:** 임과 을녀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을녀의 답답한 심정이 나타남.
- **벚꽃, 풀결:** 벚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을녀의 심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반영하고 있음.
- **낙월:**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을녀의 절망감을 드러냄.
- **구준비:** 을녀의 눈물을 함축하고 있으며, 갑녀가 제시한 감정 해소의 방식, 낙월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냄.

■ 작품의 구성 - 갑녀와 을녀의 대화

	갑녀의 질문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 ... 놀을 보라 가시 논고	
	을녀의 대답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 설워 플터 헤니 造造物물의 타시로다	
본사	갑녀의 위로	글란 싱각 마오	
	을녀의 사실	임에 대한 염려	미친 일이 이셔이다 ...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 논고
		임 소식을 찾아 배회	님다히 消息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 님다히 消息 息식이 더욱 아득훈더이고
꿈속에서 임과 재회	茅모쨌침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오던된 鷄계 聲의 잠은 엇디 씨뎃던고		
결사	을녀의 사실	어와 虛허事소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 님 겨신 窻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갑녀의 맺음말	각시님 돌아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속미인곡> 두 화자의 성격

갑녀	을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녀의 하소연을 유발하고, 더욱 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게 함. •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 •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녀의 질문에 응하여 신세 한탄을 하며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 •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 •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

■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상황

<속미인곡>의 작가 정철은 동인의 탄핵을 받아 1585년에 관직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함.



- | | |
|----------------------------------|-----------------------------------------------------------------------------------------------------------------------------------------------------------------------------|
| 임: 선조 임금
화자: 정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텨상 백옥경을 었디하야 니별하고: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고 궁궐을 나옴. • 모첨 촌 자리: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하였음. •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정철을 반대하는 세력(동인) |
|----------------------------------|-----------------------------------------------------------------------------------------------------------------------------------------------------------------------------|

<속미인곡>은 조선 시대 최고의 가사 작가로 평가받는 정철의 가사로서, 작가가 1585년부터 4년 동안, **I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 때문에 고향인 전라도 창평(昌平)에 내려가 있던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은 <사미인곡>과 함께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이라 불린다. 두 작품은 다 같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화자로 내세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辭: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④ 《송강가사》 필사본의 <속미인곡> 부분

<속미인곡>은 4음보를 1행으로 보아 48행이며, 음수율은 3·4조가 주로 사용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하는 두 여인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존재들로서 모두 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체의 형식은 우리 가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것으로 정철의 뛰어난 문학적 창의성을 잘 보여 준다.

II 서인의 당파 싸움 때문에

정철은 1583년에 예조 판서, 그 이듬해 대사헌에 올랐고 이 시기에 선조로부터 말을 하사받아 '총마어사(籠馬御使)'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1585년 파당을 만들어 정사를 그르쳤다는 혐의로 탄핵을 당해 창평으로 낙향하여 4년을 은거하며 보냈다. 정철은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성격이 괴팍하고 술이 과해 관료 사회에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러던 그는 1589년 '정여립의 난'이 일어나자 스스로 입궐하여 역모 사건을 조사하는 직책을 맡는다. 이후 3년 동안 반대파인 동인들을 맹렬하게 추궁하여 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 이것이 '기축옥사(己丑獄事)'이다. 이 일을 계기로 동인과 정철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그러다가 1591년 세자 책봉 문제가 대두되자 정철은 홀로 광해군의 책봉을 주장하다가 신성군의 책봉을 바라던 선조의 미움을 사 평안북도 강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정철은 이후 임진왜란을 계기로 잠시 다시 등용되기도 했지만 끝내 예전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p>시행 1 서사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small>을녀를 가리킴.</small> 天¹天上²상 白³璧玉⁴옥京⁵경을 엇디⁶하야 離⁷니別⁸별⁹ 하고 <small>선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함.(적강 모티프)</small> 히 다 며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는고 <small>갑녀의 질문 - 주의를 환기하고 을녀의 대답을 유도함.</small>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small>앞선 갑녀의 질문에 대한 을녀의 답변이 이어짐.</small> 5 내 얼굴이 거동이 님 괴얍즉 혼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너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¹군쁘디 전혀 업서 <small>군뜻이. 판 뜻이. 판 마음이</small> 이러야 교타야 어저러이 혼듯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10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흐니 내 몸의 지은 죄 뫼⁷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롬이라 혀믈⁸하랴 설워¹ 플터 헤니 造²造物³물의 타시로다 <small>임과의 이별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림. - 문명에 체념함</small> </p>	<p>[현대어 풀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실 들어 보오. 내 모습 이 거동이 님이 사랑함 직한가마는 어떤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탄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늦빚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서러워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p>
<p>본사 1 글란¹ 싱각² 마오 미진³ 일이 이셔이다²⁾ <small>갑녀의 위로 을녀의 하소연</small> 15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small>입을 가까이에서 모셔 와 임의 일상을 매우 잘 알고 있음.</small> 물 7⁸터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春¹춘²寒³한 苦⁴고熱⁵열은 엇디⁶하야 디내시며 秋¹추日²일 冬³동天⁴천은 뉘라셔 뫼섯는고 粥¹죽²早³조飯⁴반 朝⁵조夕⁶석 뫼 네와 7⁸터 세시는가 20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는고</p>	<p>▶ 서사: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한 두 여인(갑녀와 을녀)의 문답 그것일랑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입을 모셔 봐서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관하실 때 몇 날일까. 봄 추위 여름 더위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철 겨울철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석 진지 예와 같이 올리시나.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나. ▶ 본사 1: 을녀의 사설 1 - 임의 일상에 대한 염려</p>
<p>본사 2 님다히 消¹소息²息식을 아므려나 아쟝³ 하니 <small>어떻게든 알고자</small>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롬 올가 내 마음 돌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³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픈 뫼히 올라가니 <small>높고 험한 산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small> 25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small>□ 사이를 가리는 자연물(임과 을녀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small> 山¹산川²천이 어둡거니 日³日月월을 엇디 보며 <small>해와 달 = 임(임금)</small> 咫¹지尺²척을 모르거든 千³천 리리롤 바라보라 출하리 물7⁸의 가 비길하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동정 된더이고 <small>□ 뱃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 을녀의 심란한 마음을 반영함.</small> 30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江¹강天²천의 혼자 서서 지는 히롤 구버보니 님다히 消¹소息²息식이 더욱 아득³ 혼더이고²⁾</p>	<p>임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저물었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돌 더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집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볼까.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나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 본사 2: 을녀의 사설 2 - 임의 소식을 알고자 산과 강을 배회함.</p>

<p>본사 3 茅모篠점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p> <p>半반壁벽靑청燈등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p> <p>35 오르며 누리며 헤뜨며 바자니니</p> <p>저근덧 力력盡진하야 뜻증을 잠간 드니 <small>《 》 임 소식을 듣고자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지쳐 잠깐 잠이 들.</small> 精精誠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p> <p>玉옥 그튼 얼구리 半반이 나마 늘거세라 <small>꿈에서 본 임의 모습이 초월함 →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기를 소망하는 율녀의 마음 반영</small></p>	<p>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p> <p>벽 가운데 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p> <p>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대니</p> <p>잠간 동안 힘이 다해 뜻을 잠깐 드니</p> <p>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p> <p>옥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누웠구나.</p>
<p>마음의 머근 말슴 슬궤장 슬자 하니²⁾</p> <p>40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p> <p>情정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p> <p>오던된 鷄계聲성의 잠은 엇디 깬듯던고 <small>▶ 본사 3: 율녀의 사설 3 - 꿈에 임을 잠시 만나 더욱 애타는 마음</small></p> <p>결사 어와 虛허事소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small>꿈을 깬 후 느낀 율녀의 허탈함</small>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바라보니</p> <p>45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p> <p>《출하리》 식어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p> <p>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small>《 》 죽어서라도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염원(율녀의 소망)</small> 각시님 돌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small>갑녀의 위로</small></p>	<p>마음에 먹은 말슴 실컷 사리려니</p> <p>눈물이 바로 나니 말슴인들 어찌하며</p> <p>정회를 못다 풀어 목조차 메여 오니</p> <p>새벽닭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p> <p>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갔나.</p> <p>잠결에 일어나 안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p> <p>가엾은 그림자가 날 좇을 뿐이로다.</p> <p>치러리 죽어져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p> <p>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p> <p>각시님 달도 좋지만 곳은비나 되소서 <small>▶ 결사: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자 하는 율녀의 소망과 갑녀의 맞춤말</small></p>

“속미인곡” 읽기 공부

1. ‘미친 일’로 여가는 것은 무엇인가?

‘미친 일’은 ‘맏힌 일’이라는 의미로,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점(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점), 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임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을 의미한다.

2. 율녀가 ‘높은 댕’과 ‘물궤’에 간 거둠은 무엇인가?

임에게서 오는 소식을 알고 싶어서 /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 강가에 가면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있기 때문에

3. ‘마음의 머근 말슴’의 내용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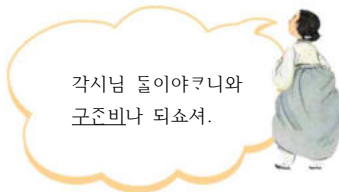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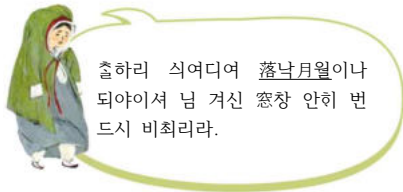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등

“속미인곡” 학습 활동 요령

1. 작품은 두 어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어인을 갑녀와 을녀로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대화 내용
	을녀에게 어디 가는 길인지 물어봄.
을녀	자신의 잘못으로 임과 헤어졌다고 대답함.
갑녀	그리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함.
을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이 잘 지내는지 걱정함. •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강을 헤매고 다님. • 임을 만나는 꿈을 꾸 후 슬픔에 잠김. •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함.
갑녀	달 대신 굶은비가 되라고 함.

2.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을녀가 “출하리 식어디어”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도저히 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하늘의 달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 임과 헤어져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2)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 차이를 생각해 보고, 갑녀가 을녀에게 “구준비”나 되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월 : 밝고 따뜻한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멀리서 임을 비취 주는 빛, 곧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것,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것 • 준비 : 차갑고 쓸쓸한 이미지, 청각적 · 촉각적 이미지, 임에게 가까이 가 닿을 수 있는 것,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준비나 되라고 한 까닭 : • 임에게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알려 주라고 달빛 대신 비가 되라고 했을 것이다. • 달이 되면 여전히 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차라리 비가 되어서 임에게 가까이 가라고 한 것이다.
--------------------------------------------------------------------------------------------------------------------------------------------------------------------------------------------------------------------------------	---------------------------------------------------------------------------------------------------------------------------------------------------------------------------------------------------

(3) 만약 갑녀라면, 을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해 줄지 말해 보자.

- “각시님, 달이 되지 말고 대신 새가 되어서 새로운 임을 찾아 훨훨 날아가세요.”
- “각시님, 죽어서 달이 되지 말고 살아서 임을 찾아가세요.”

3. 작품의 다양한 맥락과 관련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속미인곡>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와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정철은 1583년 48세 때 예조 판서가 되었으나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아 1585년에 관직을 잃고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가사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583년 9월 11일에 사간원이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라며 그를 파직하여 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草木)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라고 말하며 정철을 두둔했다. 그러나 2년 후에 정철은 다시 탄핵을 받고 결국 파직당했다.

< >에 등장하는 ‘임’과 화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옛글에서 찾아보자.

임	화자 정철
---	-------

●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상황이 <속미인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天賦上賞 白晝玉帛京景을 엇디혀야 離니別별하고	→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고 궁궐을 나옴.
茅모簷첨 촌 자리	→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함.

● <속미인곡>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동인’을 빗댄 대상	작가의 태도
구름, 안개, 바람, 물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 •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방해물을 극복할 수 없어 답답해함.

● ●~●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속미인곡>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동인이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해 ‘군.디 전혀 업서’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은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 탄핵을 받아 창평에 돌아왔지만, 선조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이다.
-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과 연군지정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창작한 것이다.

(2) <속미인곡>과 다음의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가)

잠간 동안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사무치니 편작 이 열이 온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져서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았다가 향 문힌 날개로 임의 웃으로 옮기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좃으려 하노라.

(原題) 중국 전국 시대의 전설적인 명의.

- 정철, <사미인곡>에서

(나)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先王)의 발자취 따르려 했더니
임은 내 마음 아니 살피시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누나.
나는 직언(直言)이 해로울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고
맹세코 하늘은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탄마음 가지실 줄이야.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임의 잦은 변덕 가슴 아파라.

- , <이소>에서



“속미인곡” 두 편의 차이

1 교과서 82쪽 시명 2행 **민상상 백옥옥경을 었다학야 離니제별하고**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의 서울로, 신선의 세계를 의미한다. 선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귀양을 온 적강(謫降) 모티프는 정철의 가사들과 조위의 유배 가사인 <만분가> 등에 두루 등장한다. 이때 옥황상제는 임금을, 지상으로 추방당한 신선은 버림받은 신하 자신을 상징한다. 앞뒤 구절로 볼 때, 갑녀와 을녀는 서로 이미 아는 사이이며 을녀가 선계의 존재라는 것을 갑녀가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지는 두 여인의 대화는 현실적이지만, 을녀가 선계의 존재였다는 설정만큼은 도교적인 환상성을 담고 있다.

2 교과서 82쪽 시명 11~13행 **내 품의 지은 죄 ... 造조물물의 타시포다**

을녀가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해 답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의 특징은 우선 임의 ‘반기는 낮빛’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을녀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의 변심을 원망하거나 임과 자신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대신 을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또한 ‘조물’의 탓이라고 표현하며, 임의 변한 마음을 그저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운명에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을 듣고 갑녀는 “글란 .각 마오”라며 을녀를 위로한다. 갑녀의 위로부터 ‘본사’에 해당한다.

3 교과서 82쪽 시형 15~16행

피서 이서 ... 권항실 적 몇 날일고

을녀는 입을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입의 일상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입을 염려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입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으며, 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잘 살피는 존재인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물처럼 연약한 입의 본래 모습을 잘 알기에, 을녀는 입의 일상을 세세하게 보살피고 싶어 한다.

4 교과서 82쪽 시형 17~20행

추관추관 캉고죽일은 엇디학야 ... 좁은 엇디 자시논고

을녀는 입의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모두 떠올리며 걱정하고 있다. 을녀가 걱정하는 입의 일상은 봄·여름·가을·겨울, 새벽·아침·저녁·밤까지 모든 시간을 아우른다. 마치 입이 어느 한 순간도 을녀의 살뜰한 보살핌이 없이는 편안히 지낼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교과서 83쪽 시형 24~25행

잡거니 밀거니 늙은 피워 ... 안개논 므스 일고

높고 험한 산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잡거니 밀거니'로 표현하였다. '구름'과 '안개'는 시야를 가리는 자연물로, 여기서는 입과 을녀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며, 을녀의 답답한 심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6 교과서 83쪽 시형 28~29행

출하리 물구외 가 ... 어풍경 편디이고

'바람'과 '물결'은 뱃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서는 을녀의 심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7 교과서 83쪽 시형 30~31행

사공은 어더 가고 편디만 ... 혼자 서서 디는 휘물 구비보니

'빈 배', '혼자' 등의 시어는 을녀의 쓸쓸함을 드러낸다. '지는 해'는 을녀가 산에 올랐다가 강가로 오기까지 하루가 다 갈 정도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려 준다. 또한 '지는 해'는 을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더 이상 을녀를 돌아보지 않는 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8 교과서 83쪽 시형 35~36행

오루머 누리며 해뜨며 ... 뜻짐을 잠간 드니

입의 소식을 듣고자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고 강가를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을녀는 지쳐서 잠깐 잠이 든다. 동사를 나열하여 역동성을 드러내는 것은 정철 가사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이다.

9 교과서 83쪽 시형 38행

조옥 구론 일구리 수편이 나마 놀거세라

꿈에서 본 입의 모습이 초췌한 것은 입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기를 소망하는 을녀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교과서 84쪽 시형 43~45행

이와 출하리수르다 ... 이엇본 그림제 날 조을 쓴이르다

전날 산과 강을 헤매 다니며 입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자 했던 을녀의 절박한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입과의 거리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곁에 있는 것은 가없는 자신의 그림자뿐이다. 꿈에서나마 잠깐 입과 재회하였지만, 정작 입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꿈에서 깬 을녀의 허탈함은 결국 '차라리 죽어서'라는 극단적인 상상으로 이어진다.

11 교과서 84쪽 시형 46~47행

출하리 쇠어디어 낙월월이나 피야이서 / 님 거신 출장 안히 편디시 피워리라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입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을녀는 결국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서라도 입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염원을 드러내는데, 이는 입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에서의 자기 존재를 버리는 대신 깊은 밤의 지는 달이 되어 입이 계신 곳을 비추겠다는 또는 그렇게 해서라도 입을 지켜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낙월(落月)은 지는 달이므로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곧 지평선 아래로 사라질 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월은 창을 통해 방안을 비출 수 있는 달이고, 방안에서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다. 을녀는 낙월이 되어 잠깐이라도 방안을 비추면서 입을 바라보고 싶다는 것이다.

12 교과서 84쪽 시형 48행

각시님 물이야라니와 구준끼나 피쇼서

을녀의 말을 들은 갑녀는 달이 되지 말고 굶은비가 되라고 말한다. 이는 을녀의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인 한편 입을 향한

을녀의 지고지순한 태도에 대한 모종의 반발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갑녀와 을녀의 마지막 발언이 모두 작가 정철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갑녀의 맺음말은 임에 대한 한결같은 연모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을 버린 임에 대한 원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중 자료

● 여성 화자를 내세운 사대부 문학

정치적으로 실패한 신하가 임금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직접 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은 불행한 궁중의 여인이 되어 돌아보지 않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은유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불행한 여성을 상상 속에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비극적 심정을 대리로 발산하는 방법인 것이다. <중략> 군신 관계라는 사회적·정치적 삶과 남녀 관계라는 개인적·심리적 삶이 복합되어 문학적 우의(寓意)로 표현되었다.

● ‘달’과 ‘긋은비’의 의미

‘달’과 ‘긋은비’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을녀와 임을 이어 주는 ‘매개물’이다. 을녀는 현실적인 매개물로 사공과 배를 찾았지만 실패했고, 꿈 역시 두 사람을 이어 주지 못했다. 결국 을녀는 달이 되어서라도 임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이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긋은비는 을녀가 처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달과 긋은비의 이미지를 놓고 보면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달은 밝은 이미지, 긋은비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달빛은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반면에 긋은비는 청각적, 촉각적으로도 감지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달은 하늘 위에 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임을 바라볼 뿐이지만, 긋은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임이 있는 곳까지 가 닿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의 두 시조를 보면, 각각 비와 달이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대신하는 소재로 그려지고 있다. 첫 번째 시조에서는 비가 ‘외로운 신하의 원망 어린 눈물’로 비유되고 있다. 긋은비는 눈물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도 달과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시조에서 달은 높은 하늘에 떠서 임을 비추는 존재로서, 임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와 같음을 형상화한 소재이다. 여기서 임을 비추는 것은 바라봄, 지켜 줌, 축복 등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삼아
찍여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본들 엇드리

- , 청구영언

내 모습 버혀 내여 더 둘을 밍
글고져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의 번
드시 걸려 이서
고온 님 계신 고디 가 비취어나
보리라

- 정철, 《송강가사》

● <사미인곡>

<사미인곡>은 작가 정철이 50세 되던 해 당파 싸움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4년간 전남 창평에서 은거하며 지낼 때 지은 가사로, 《송강가사》에 실려 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로서, 임을 향한 충성심을 임을 생각하는 여인의 마음에 빚대어 나타내고 있다. 자신을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서, 임금을 임으로 설정한 후, 사계절의 풍경과 함께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적 어조로 임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애절하게 드러낸다.

다양한 표현 방법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절묘한 언어 구사가 돋보여 가사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비교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연군의 정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른 방식과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사미인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차례로 다루어 작품을 구성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동동>, <규원가>, <성산별곡> 등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고전 시가의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법이다. 이에 비해 <속미인곡>은 두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구성했다는 점이 독창적이다.

2-(1) 속미인곡 [이론편]

		< >	<속미인곡>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임을 그리워함. • 화자가 천상(天上)에서 하계(下界)에 내려온 여성임. • 죽어서도 다른 자연물이 되어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함. 	
차이점	전제	사계절에 따른 화자의 독백체	두 인물의 대화체
	표현	한자 성어나 고사(故事)가 사용되었으며, 과장된 표현이 드러남.	고유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함.
	화자의 태도	속만 태우고 있으며, 임이 자신을 몰라주어도 임을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임.

•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와 여성 화자**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충신연주지사라 한다. ‘충신연주지사’는 충성스런 신하가 조정에서 쫓겨나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는 뜻이다.

정철은 당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이 작품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했다. 특이한 것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가 사연을 토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그 애절한 심정을 하소연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특수한 것임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애정 관계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하소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특수한 사연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전환하여 표현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는 것으로, 이러한 의도로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방식은 우리 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 ① 두 작품 모두 화자가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두 작품 모두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 ③ 두 작품 모두 펼쳐진 상황을 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두 작품 모두 화자는 죽어서도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한다.
- ⑤ 윗글은 두 인물의 대화로, <보기>는 화자의 독백으로 전개되고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4. 이 작품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기>와 같이 현대어 대화로 재구성하였을 때, 그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갑녀 : 당신은 해가 다 저문 날에 어디를 가시나요?
 을녀 : ㉠ 제가 죄가 산같이 많이 쌓여서 임과 헤어졌습니다.
 갑녀 : 그런 생각 말아요.
 을녀 : 저는 입을 가까이 모셔 임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입이 요즘 잘 지내시는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 임 계신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강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 돌아와 잠이 잠깐 들어 꿈속에서 입을 만나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 닭소리에 잠을 깨어 보니 허탈함만 느껴졌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5. 이 작품과 <보기>와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先王)의 발자취 따르려 했더니
 입은 내 마음 아니 살피시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
 누나.
 나는 직언(直言)이 해로울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고
 맹세코 하늘은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탄마음 가지실
 줄이야.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임의 잦은 변덕 가슴 아파라.
 - 굴원, <이소>에서

- ① 두 작품 모두 유배 가사라는 갈래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② 문학사적으로 <보기>의 작품은 위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③ 위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직언을 듣지 않는 임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두 작품 모두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은 신하가 임금의 신임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쓴 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6. <보기>의 밑줄 친 시어 중 위 글의 ㉡의 비유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브름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山眞(산진)이 水眞(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르미도 다 쉬
 여 넘는 高峯長城嶺(고봉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여 넘어가리
 라

- 山眞(산진)이 : 산지니. 산에서 자란 매. 야상의 매를 의미한다.
- 水眞(수진)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
- 海東靑(해동청) : 송골매, 매 등을 의미한다.

- ① 브름
- ② 고기
- ③ 구름
- ④ 보르미
- ⑤ 님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7.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감상문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속미인곡>은 ㉠ 두 여인의 대화방식을 취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주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 ‘갑녀’와 ‘을녀’는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모두 작가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 갑녀는 전개와 종결을 위한 보조적 화자이지만 을녀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을녀의 언행을 평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비판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 을녀는 하소연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작가를 대변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중심화자로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 이러한 대화구조로 인하여 을녀의 사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실한 것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유자소전” 문체 특징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사실적, 비판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인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인품
특징	①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② ‘전(傳)’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함. ③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구성 (교과서 수록 부분)	• 1: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 • 2: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 ①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넉살과 께를 발휘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장례를 도움.		

핵심 내용

■ 본문에 나타난 ‘유자’의 인물상

- ① 말재주가 좋고 비범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 ② 스스로 갖추어진 죽대와 나름것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함.
-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 ④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대처함.

■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유자소전〉은 서술자의 주변 인물인 ‘유자’의 일대기를 다루며 전통적 전(傳)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정 기술	행적	논찬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출생과 가계에 대해 기술함.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삽화를 나열함.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함.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 서술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성품을 보여주는 삽화들을 제시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함.

■ 작품에 쓰인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방언	비속어
‘-지유’, ‘-혈규’, ‘-여’ 등의 어미, ‘찌웃그리다’, ‘제우’ 등의 어미	‘자빠지구’, ‘찍을 늬달’ 등



-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획득함.
- ‘유자’의 인정이 많고 순박한 면모를 드러냄.
- ‘유자’에 대해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음.
-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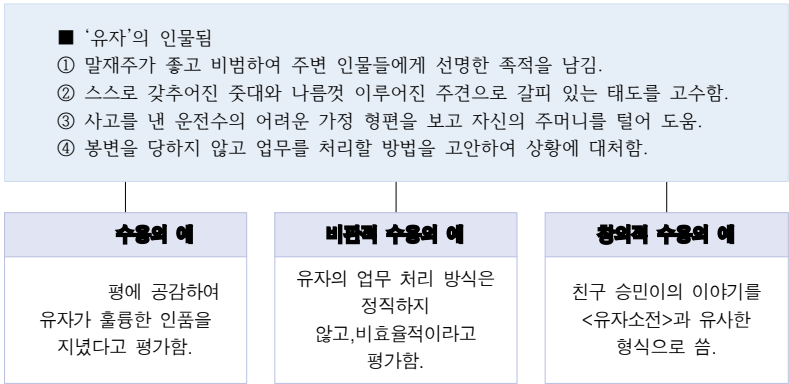
■ '유자'(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유자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유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음.	①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여 부르는 '자(子)'를 붙여, '유자'의 생애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음. ② '...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와 같이 유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와 같이 유자의 행동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	------------------------------------------------------------------------------------------------------------------------------------------------------------------------------------------------------------------------------------

■ 작품에 나타난 판소리 사실 무

판소리 사실의 특징	효과	작품의 서술 예시
편집자적 논평 : 서술자가 사건, 인물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	·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함. ·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독자와 함께 함.	·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허름송이는 아니었다. · 체취는 그윽하고 ...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만연체 문장 :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장황하게 표현한 문장	· 서술자의 서술에 몰입하게 함. · 인물과 상황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그는 어려서부터 ...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 소홀함이 없었다. · 또한 남의 아픔이 ...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대구 표현 :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은 표현	· 말의 운율을 느끼게 함. ·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 스스로 갖추어진 죽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건 ·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 <유자소전>의 공감적 · 비판적 · 항의적 수용의 예



<유자소전>은 실존했던 인물인 주인공 유재필의 일대기를 통해 **1** 우리 사회의 한 병폐인 물질 만능주의와 물인정한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다. 이문구는 한문 산문의 전(傳) 양식을 계승하여 인물의 평생을 다룬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자소전>이다.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이 성에 자(子)를 붙여 크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전통을 이어 유재필을 유자라 일컬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서술자는 유재필의 남다른 품성과 삶을 높이 평가하여 우러른다. **2** 그 맞은편에 이기심, 물인정, 물질주의에 갇힌 사람들을 놓아 그들의 부정적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하였다. 충남 보령 지역의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유희, 반어, 대조 등의 표현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1 사회의 한 병폐인 물질 만능주의와 물인정한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다.

<유자소전>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개인 종합 병원의 원무 실장으로 일하던 유자는 가두시위에서 부상당한 노동자들이 병원에 찾아오자 그들을 입원시킬 수 없다는 원장과 대립하게 된다. 입원비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를 병원에 들일 수 없다는 원장에게 맞서, 유자는 ‘책임지겠다’고 하며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다 나은 환자들을 탈출시키는 일까지 마무리를 한 후 사표를 낸다. 서술자는 이 일화를 소개하며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 그 맞은편에 이기심, 물인정 ... 부정적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하였다.

<유자소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이 사례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재벌 총수이다. 유자는 재벌 총수 밑에서 운전수로 일했었는데, 총수는 사람 몸값을 훌쩍 뛰어넘는 값의 물고기들을 자택 연못에 키우고, 이 물고기들이 죽게 되자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또 황금 불상을 집 안에 모셔 놓고는 직원들에게 이를 청소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이런 총수의 태도는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인물에게는 정작 물인정하다고 할 수 있다. 유자는 그런 총수를 끊임없이 예들러 비판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민중 지평

● **전통적 서사를 계승한 <유자소전>**

이 작품은 제목대로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이다.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온 점이 나,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하게 한 점, 희극적 상황의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인 서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자라는 인물의 다소 전근대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사치심과 이기심에 젖어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자세를 비판하는 방식은 웃음 속에 현실을 풍자하는 가면극과 매우 흡사하다.

● **‘유자’의 인간적 면모**


노선 상무의 일이라는 게 회사 직원이 이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여기서 유재필의 인간적 면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되 성의를 다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재필의 일 처리 방식은 대단히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이다. 그는 경제 논리로 피해자와 협상하는 게 아니다. 유재필은 피해자들을 인정으로 포용하며 정직으로 받아들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각별한 예의와 관심을 표명하는 유재필의 행위는 근대인의 그것이 아니다. 관용과 포용의 미덕이 육화된 전근대인의 행위다. 작가가 유재필에게서 보는 건 근대인의 초상이 아니라 전근대인의 초상인 것이다.

“유자소전” 학습 활동

1. 소설의 중심인물과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소설의 중심인물인 ‘유자’는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보자.

- 이름: 유재필
- 태어난 해: 1941년
- 태어난 곳: 홍성군 광천
- 자란 곳 : 보령군 대천
- 성장 배경: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
- 직업: 버스 회사 노선 상무
- 성
 - 죽대가 있고 주관이 뚜렷함.
 - 사리 분별이 명확함.
 -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님.



(2) 다음 장면에서 유자가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물어 꼭과 이야기해 보자.

낸 스페어 운전수 집에 갔을 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쌀과 밀가루, 연탄 등을 놓아 준 행동 → 업무상으로 만난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와주는 데서 유자의 선한 마음씨를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	거짓 울음을 연기한 행동 → 진짜 조문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나오지 않는 눈물까지 나는 척했던 유자의 너스레가 무척 우스웠기 때문이다.

2. 이 작품에서 공감을 만한 것과 비판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유자’의 인물 특질에 관해 의견을 나눠 보자.

공감할 만한 것	비판할 만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유자의 가치관 •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교통사고의 처리를 원만하게 해내는 유자를 서술자가 높게 평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사람에게 과한 도움을 받은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 유자가 교통사고 뒤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 • 장례식에서 유자의 행동을 보고 유자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유가족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뒤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 유자는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를 해내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며,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능청맞게 행동하기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유자소전” 읽기 중 활동

1.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으스대는 사람,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멋멋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2. 서술자가 유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등
→ 유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남.
- ‘...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유자의 행동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유자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가 드러남.

3. 왜 이와 같은 탄식을 하는 것일까?

- 유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유가족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이와 같이 탄식했을 것이다.
- 폭언을 듣고 먹살을 잡고 언어맞아도 유자는 어디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자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이런 탄식을 했을 것이다.

4. 유자가 자기가 속한 회사를 나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수의 회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 유가족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유자소전” 두필 읽기

㉑ 어느 사람처럼 ... 예사 허풍승이는 아니었다.

유자가 그 일생을 통해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긴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㉒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 이력이 난 터이었다.

앞에서 언급된 유자가 지닌 ‘죽대’와 ‘주건’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자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으스대는 행동, 옳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 등을 그릇된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㉓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 뉘를을 그어 두기에 소울함이 없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 소설인 《삼국지연의》를 일컫는다. 《삼국지연의》는 유비, 관우, 장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의리가 강조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조조는 다소 용렬(庸劣)한 인물로 그려지며 그들과 대립하기 때문에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읽게 된다. 이 부분은 그러한 상황에 빚대어 유자가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매우 미워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㉔ 과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 때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이 부분에서 ‘흑백’은 ‘옳고 그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유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딱 부러지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과한 말을 시집보내며 생긴 경제적 이익을 밀천으로 돈벌이를 나서는 데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구두쇠를 보듯이 멸시하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㉕ 이론파 ... 선피적인 덕망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권구였다.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이다.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야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송대(宋代)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범중엄(范仲淹)의 시 <악양루기(岳陽樓記)>의 한 구절로, 바람직한 관리·지도자상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유자는 그 어진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㉖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俞子)였다.

‘가(哥)’는 성씨 뒤에 붙어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자(子)’는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어 ‘높임을 받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서술자는 친구를 두고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㉗ 그가 다루는 사건도 때만이 가해자의 운권 윤리 마피종이 저아낼 것이었다.

교과서에는 생략 되었지만, 이 문장의 앞 문단에서 유자는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고 위험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비난하는데, 이 문장에도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했던 유자는 운전 윤리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㉘ 가해자가 그룹 내의 ... 적당주의를 취한 격은 거의 없었다.

유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라고 해서 기존의 주관과 원칙을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죽대가 있고 사리분별이 바른 유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자신의 돈을 써서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임시로 고용한 운전수들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비(私備)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 주고 있다.

㉡ 사고를 낸 회사에서 ... 주머니를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유가족을 찾아가 유자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고 그 울분을 풀 대상을 찾던 중, 사고를 낸 운전수의 소속 회사 사람인 유자가 사고 처리를 하러 가면 그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았고, 이 때문에 유자는 봉변을 당하곤 하였다.

㉢ 니야탈루 군사 정변이 나서 ... 털이겨 줬던 단춧감을 보며 주매?

유자는 어린 시절 확정기 수리를 도우며 야당의 정치 유세를 따라다녔다. 이 인연으로 유자는 정치 식객은 아니면서도 ‘비서관’이란 대외용 명함을 지니고 한동안 야당 정치인의 자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오월 군사 정변이 일어나자 조사 대상으로 끌려갔는데 털어 봤자 나올 것이 없는 몸이었기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유자는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무소불위의 공권력하에서도 화를 피했던 자신이 잘못된 것도 없이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 저쪽의 예방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유자는 유가족을 방문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 낸다. ‘선수를 친다’는 것은 유자가 먼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책임을 언급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종교에 따라 다른 장례 문화가 있으나 유자는 어디를 가든 영정 사진 앞에서 두 번의 절을 하였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우는 척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흉물을 떨면서 유가족의 시선을 끌어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도 했다.

㉥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 경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유자는 사망자와의 인연 때문에 빈소를 찾은 사람이 아니다. 유자가 빈소에 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유족의 입장에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유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유가족과 다소 가까워진 다음,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듣고서야 정체를 밝힌다.

㉦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 이며 경위가 아닌 거였다.

유자가 명함을 내밌으로써 유자의 소속과 방문 목적이 드러났음에도, 서로 술상을 함께 한 뒤라서 유가족들이 유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사고 처리반으로 나선 초기와 달리 유자가 빈소에서 더 이상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 권주코에 입문하여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유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 주기 위해 침놓는 법, 풍수지리, 수맥을 배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깃저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 과방이 읊으니 그르니 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장지를 쓰는 일로 시비가 붙은 상황을 가리킨다.

㉩ 그리고 보면 그의 총수는 ...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총수’는 유자가 일하는 회사의 총수를 말하는데, 그는 유자를 자신의 운전수로 두었다가 몇 가지 사건 끝에 노선 상무로 좌천시킨 인물이다. 서술자는 총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자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총수가 유자를 과장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유자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며, 유자는 누구보다도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के 그러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숭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裁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포대에서 별종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나)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 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쫓대와 나뭇잎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결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볼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 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다)

(중간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불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 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용통성을 발휘하여 말쑥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라)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쑤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중간 생략)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뵙에 제우 지랑뻘이 읊으니 뱍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볼에 귀 자시던지 뱍솔에 찌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잡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할 규.”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마)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에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양양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울거나, 때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먹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 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짹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사는 운전수를 동로라구 돈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여? 너야말루 군사 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두 볼테이 한 대 안 쥐백히고 니 발루 걸여 나온 물건인디 말여, 그런디 이제 와서 녀의 영안실이나 찌웃그리메 장삼이사헌티 놉 짜소리 듣는 것두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구 발길질에 엎어 지구 허니, 니가 그러구 땡긴다고 상무 전무가 야까장기값을

물어 주데,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밝힌 단춧값을 보태 주데?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버러 이냥 념의 아랫도리루만 돌며 살라구 널 나 놓셨네? 너두 처자가 있는 뭇이 이게 뭐라네? 뭐여? 니 신세두 참…”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 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희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 이문구, 「유자소전」 중에서

금호고등학교 (서울)

1. 위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성적인 인물의 면모와 일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시대를 초월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빚어낸 이야기이다.
- ③ 물질 만능주의를 표방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풍자하고 있다.
- ④ 인물이 겪은 사건으로 부정적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⑤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인물의 삶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2. 밑줄 친 ㉠ ~ ㉣의 의미를 잘못 말한 것은?

- ① ㉠ : 마땅한 이유 없이
- ② ㉡ : 못 미더운 사람
- ③ ㉢ : 가볍고 참음성 없이
- ④ ㉣ :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쉽게 넘어가려는 태도
- ⑤ ㉤ : 못마땅해서 몹시 화가 나 있던

금호고등학교 (서울)

3. 위 작품의 주인공과 <보기>의 밑줄 친 인물을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 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밧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公)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듯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 중에서

- ① 둘 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 ② 둘 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다.
- ③ 둘 다 시비를 가리는 일을 싫어했다.
- ④ 둘 다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였다.
- ⑤ 둘 다 무엇이든지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4. 위 작품과 <보기>를 함께 읽고 감상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자 '나'는 고향 이웃 중에 진실로 고마웠던 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의 이름은 신현석이며 석공으로 불렸다. 일제 시대에 '나'는 양반 집안이었고 그는 남의 행랑살이를 했던 터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석공이 결혼을 하던 날, 마을에서 존경받던 아버지가 그의 집을 찾아 노래와 춤을 함께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석공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 아버지가 경찰에 구금될 때마다 사식(私食)을 넣어 주기도 했다. 이 일로 아버지에게 어떤 혐의가 있을 때면 석공도 끌려가 조사를 받거나 고문을 당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잠시 주둔할 때 석공은 군청 서기가 된다. 그래서 국군이 주둔할 때 그는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고향에 돌아온 그는 출선수범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주도했고 이웃을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나'의 집안의 어른신이 세상을 떠나면 나서서 그 뒷일을 모두 처리해 주었다. '나'가 집안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갈 때에도 큰 힘이 되었다. '나' 역시 그에게 편지를 하고 고향에 갈 때면 그의 집을 가장 먼저 찾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만다. 다시 검사해 본 결과 백혈병이었다. 치료제가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퇴원하여 시골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고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나'에게 잘 살라는 말을 남긴다.

- '공산토월(이문구)' 줄거리

- ① “유자와 석공은 우리나라의 불행했던 현대사를 증언하는 인물이야.”
- ②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속한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유자의 이야기가 풍자와 해학의 맛이 있다면 석공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
- ④ “석공은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양이 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
- ⑤ “석공은 신분이 낮은 소외계층이었지만 유자 못지않은 인품을 지녔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계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송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裁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맛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과 볼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가기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쭉밭에서 우뚝하였다.

(나)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뜻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결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진하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 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뒹뒹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어.”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붙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 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다. 한 마리 가격이 회사원의 몇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 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라)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나 야만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쭉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 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 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쌀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 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올라 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달게 고양이 안 달게 아무지게 매달

아 주면서,

[A] “뵈에 제우 지랑뵈이 읍으니 뵈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뵈에 귀 자시던지 뵈솔에 찌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잡어두 뇌 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 볼 만혈규.”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

창동고등학교 (서울)

5. ㉠ ~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희생된 사람
- ② ㉡ : 일을 미덥게 하지 못 하는 사람
- ③ ㉢ : 말이나 하는 짓이 별스러움
- ④ ㉣ : 운수가 꼭 막힘
- ⑤ ㉤ : 어찌할 도리가 없음

창동고등학교 (서울)

6. ‘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존재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 ②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 ③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다.
- ④ 사리 분별을 못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 ⑤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오스대는 사람이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7. [A]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속적인 정감을 느끼게 한다.
- ② 사실성과 현장감을 부여해 준다.
- ③ 작품에 풍자적 분위기를 더해 준다.
- ④ ‘유자’에 대해 독자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⑤ ‘유자’의 인정이 많고 순박한 면모를 드러내게 한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대화에서 위 작품의 문체와 내용에 대해 바르게 말한 사람들로만 모두 짝지은 것은?

<보기>

- 세찬 : 충청도 사투리에서 인물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대화가 생생하게 느껴졌어. ‘겨우’를 ‘제우’라고 하고 ‘반찬’을 ‘건건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지 않니?
- 효리 : 사투리에서 오는 긴장감과 절제된 어감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가)에서 인물을 묘사한 부분은 간결하고 압축적이야.
- 영자 : 전반적으로 긴 문장과 현란한 비유가 물 흐르듯이 이어져 있어. 다소 장황한 듯도 하지만 유장한 판소리 사설 느낌이 나.
- 재석 : (나)와 (라)에는 비슷한 구절이 짝지어진 표현이 있어서 읽을 때 가락이 느껴지지 않니? 이것도 판소리 느낌이 나는 걸?

- ① 세찬, 효리 ② 영자, 재석
- ③ 효리, 재석 ④ 세찬, 효리, 재석
- ⑤ 세찬, 영자, 재석

비슬고등학교 (대구)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속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과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장황하게 표현함으로써 서술자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에 대하여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며 판소리 사설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 ④ 인물의 출생에 얽힌 비화를 상세히 기술하여 전통적 ‘전(傳)’의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이 사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던 삶에 대한 억울함을 독백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영되어 건진 고흐의 별빛” 분석 정리

정리

감매	서정시, 자유시	성격	회화적, 감각적
제재	화가 고흐의 그림	주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
특징	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고흐 그림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묘사함. ② 열거와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구성	• 1, 2행: 고흐의 그림을 삼. • 3-13행: 고흐 그림 속 풍경 묘사 • 14-16행: 빛나는 것들에 대한 통찰(그림에 대한 감상)		

핵심 내용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빛나라, 발광하여, 빛나라, 편백나무야:** 별, 편백나무는 모두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존재들로, 화자는 이들에게 '빛나라'라고 말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화자는 설의적 의문을 통해 '세상에 모든 존재는 빛난다'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 화자는 농부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노래를 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의 사상과 감정을 지닌 고유한 개체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시의 내용 구조

시상의 시작
세일(sale)하여 파는 고흐의 복사화를 구매함.

시상의 전개
고흐의 복사화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묘사함.

주제 의식의 발견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이 남.
• 농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모든 별은 노래한다는 것을 의문형으로 제시
•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빛나라”라고 말함.

■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

시에 반영되어 있는 인접 분야(미술)	시와 인접 분야(미술)의 관계
고흐의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에 형상화되어 있는 대상을 화자의 시선 이동(편백나무 두 줄기 → 밀밭 앞길 → 위태한 마차 → 농부 둘 → 왼편 귀퉁이의 희미한 것 → 해와 달)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고흐의 그림이 시 창작의 모티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시에 나타난 그림 묘사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은 고흐의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시에 제시된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 보면 그림에 등장하는 요소와 구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편백나무 두 줄기와 밀밭, 그리고 밀밭 앞길로 굴러오는 마차 한 대, 삽을 들고 가는 농부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걸어오는 농부, 하늘 위 원편 귀퉁이에 희미한 별, 시에서 해로 묘사된 별 등 시인은 고흐의 그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은 ‘세일’ 곧 할인 판매하는 곳에서 산 고흐의 복사화를 보고 상상한 것과 깨달은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❶ 화자는 그림 속 농부들과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별도 편백나무도 보리밭도 농부들도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인데, 그런 존재들이 ‘환하게 노래하는’ 세계를 상상하여 보여 주는 아름다운 시이다. 이 시는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등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고흐의 그림에 대한 감상을 넘어 삶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작품이 되었다. ❷ 미술 작품의 세계를 단순히 시로 옮기는 데 머물지 않고 주제적인 해석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 것이다.

❶ 그림 속 농부들과의 ... 깨달음에 이른다.

그림 속 등장인물과의 대화는 이 시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화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빛난다.’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❷ 미술 작품의 세계를 ...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 것이다.

고흐의 그림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이 고흐가 저녁 산책길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라면, 황동규의 시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세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문
1행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희의 복사화
(sale) 이 시를 창작하게 된 사상의 대상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 길』

▶ 1~2행: 고희의 그림을 삼.

3행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5 밑발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마차가 오는 모습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
『하나는 삼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찌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 : 그림 속 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시인이 고희의 그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 줌.

10 『하늘 위에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 있고
(별나라엔들 외로운 별 없으랴)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 : 미술 작품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 해석이 엿보이는 대목

□ 화자가 "빛나라"라고 말하는 대상

▶ 3~13행: 고희의 그림 속 풍경 묘사

□ 화자가 "빛나라"라고 말하는 대상

▶ 3~13행: 고희의 그림 속 풍경 묘사

14행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15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빛난다는 의미
있다면, 고희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희가 아직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모든 존재는 빛남.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 :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화자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임.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

20 빛나라,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 14~22행: 빛나는 것들에 대한 통찰(그림에 대한 감상)
(버클리풍의 사랑 노래)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여,』
질문을 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킴.

“연필로 그린 그림 고흐의 별빛” 학습 활동

1. 시의 사상 전개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1~2	3~13행	14~22행
고흐의 그림을 삼.		

- 부분으로 나눌 경우
3~13행 : 고흐의 그림 속 풍경 묘사
14~22행 : 그림을 보고 느낀 점(빛나는 것들에 대한 통찰 -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남.)
- 네 부분으로 나눌 경우
3~13행 : 고흐의 그림 속 풍경 묘사
14~16행 : 그림을 보고 느낀 점(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남.)
17~22행 : 농부와의 대화

2. 이 시의 모티프가 된 고흐의 그림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시에서 묘사한 순서대로 그림의 빈칸에 번호를 써넣고, 화자의 시선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시에서 묘사한 순서
: 편백나무 두 줄기 → 밀밭 앞길 → 위태한 마차 → 농부 둘 → 왼편 귀퉁이의 희미한 것(별) → 해와 달
- 화자의 시선은 그림의 중앙(편백나무)에서 아래(밀밭 앞길)로 이동하였다가 오른쪽(마차, 농부)으로 시선을 돌린 후, 하늘 왼쪽(희미한 것)으로 이동하였고, 그림의 상단부(해와 달)로 다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2) 화자가 “빛나라”라고 언급한 대상물을 일거하고, 그 대상물이 지닌 공통점을 말해 보자.

화자는 별들(14행), 편백나무(14행), 보리밭(20행), 외로운 별(20행), 농부들(22행)을 향해 “빛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다.

(3) 이 시를 그림과 함께 감상하는 것과 그림 없이 감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말해 보자.

그림과 함께 감상할 때에는 시의 내용과 그림을 비교하면서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림 없이 감상할 때에는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을 상상하고 화자의 심정을 추측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

3. 다음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

이 시구에서 시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시인은 ‘별들은 환하게 노래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별들이 노래한다’는 것이다. 노래란 곡조를 붙여 부르는 소리나 말로, 노래 부르는 이의 사상과 감정이 그 안에 녹아 있다. 시인은 이 시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의 사상과 감정을 지닌 고유한 개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림의 내용을 글로 설명해 보자..



▲ 고희, <감자 먹는 사람들>



▲ , <나무와 두 여인>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등불 아래에 있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다.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의 차를 따르는 여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데, 그림의 제목을 참고하였을 때 감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집은 매우 어둡고 식탁에 감자와 차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인다.

-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에는 가운데 앙상한 가지를 가진 겨울나무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가고 있고, 왼쪽에는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업고 있다. 이 여인은 며느리 또는 딸로 보이는 여성의 아이, 즉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처럼 보인다.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구원 풀이

1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와

화자가 복사화를 얻은 시기는 ‘방금’으로, 화자가 그림을 보고 느낀 감동이 시상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실제 고흐의 그림을 보면, 나무가 수풀이 우거져 하나처럼 보이지만 나무 기둥이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이 모습을 두 나무가 ‘서로 얼싸안고’ 있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3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마차가 오는 모습을 화자는 ‘위태’하다고 보고 있다. 고흐의 그림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시구로, 고흐 특유의 붓 터치를 통해 마차가 내려오는 길이 좁았다가 넓게 표현되어 있어 비탈길의 경사가 느껴져 이처럼 표현하였다.

4 하나는 삼을 먹고 /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저문 채

그림 속 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이다. 화자가 고흐의 그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하늘 위에 별이려곤 ...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하늘에 빛나는 사물이 셋이다. 화자는 왼쪽 귀퉁이에 있는 것은 별이고, 편백나무를 기준으로 왼쪽에 크게 빛나는 것을 해로, 오른쪽에 초승달처럼 보이는 것을 달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미술 작품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 해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6 있다면, 고흐가 세 다너가지 않았을 뿐.

화자는 고흐의 그림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빛난다는 통찰에 이른다. 즉,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흐가 아직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모든 존재는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 ‘저 별들이 왜 환하게 ... 별이 어디 있소?’

이 시의 화자는 고흐의 복사화에 등장하는 농부들을 향하여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라고 말하고 있다. 화자의 질문은 의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저 별들이 환하게 노래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라는 시적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서정시는 대상과의 대화보다는 독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대화의 형식을 취하였다.

8 빛나라, 보리밭이여, ...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여.

화자는 ‘보리밭’, ‘별’, ‘농부들’을 열거하며 ‘빛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농부들을 가리켜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란 농부들에게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라고 묻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3. <보기>의 ㉠ ~ ㉥ 중 위 시의 ㉡과 동일한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보기>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붙어지고

㉠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

㉡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엽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 암것이라 쫓길 뿐

수눔이라 쫓을 뿐

㉤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럼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 ② ㉡
 ③ ㉢ ④ ㉣
 ⑤ ㉤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의 주제 의식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시인이 '빛나라'고 언급한 대상들의 공통점과 그 대상들에 대하여 시인이 보여 주는 정서를 포함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비슬고등학교 (대구)

5. <조건>을 활용하여 (가)의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을 쓰시오. 또한 (가)와 (나)의 내용상 공통점을 쓰시오.

<보기>

(가)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화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 길>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서울 열싸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밀밭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하나는 삼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찢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하늘 위에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 있고
 (별나라엔들 외로운 별 없으랴)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있다면, 고흐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
 빛나라, 보리바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여.
 - 황동규,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

(나) 자세히 보아야 / 예쁘다. //
 오래 보아야 /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 나태주, 「꽃」 -

<조건>

- (가)의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가)와 (나)의 내용상 공통점을 적을 것.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화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 길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서로 열썩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밀밭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하나는 샅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하늘 위에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 있고
(별나라엔들 외로운 별 없으라)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있다면, 고흐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A]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
빛나라,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여.
- 황동규,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

(나) 봉준(捧準)이가 온다, 무식하게 무식하게
일자 무식하게, 아 한문만 알았던들
부드럽게 우는 법만 알았던들
왕 뒤에 큰 왕이 있고
㉡큰 왕의 채찍!
마패 없이 거둡 국경을 넘는
저 보마(步馬)의 겨울 안개 아래
부챗살로 갈라지는 땅들
포(砲)들이 얼굴 망가진 아이들처럼 울어
찬 눈에 홀로 볼 비빌 것을 알았던들
계룡산에 들어 조용히 발에 목매었으련만
목매었으련만, 대국낫도 왜낫도 잘 들었으련만,
눈이 내린다, 우리가 무심히 건너는 돌다리
형제의 아버지가 남몰래 앓는 초가 그늘에
귀 기울여 보아라, 눈이 내린다, 무심히,
갑갑하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무식하게 무식하게.
- 황동규, 「삼남에 내리는 눈」 -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읽고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상의 시작
세일(sale)하여 파는 고흐의 복사화를 구매함.
↓
시상의 전개
고흐의 복사화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묘사함.
↓
주제 의식의 발견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이 남.

* 농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모든 별은 노래한다는 것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제시
*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빛나라”라고 말함.

-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반복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강렬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가)의 ㉠과 (나)의 ㉡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가)는 ‘고흐의 복사화를 구매함 → 고흐의 그림 풍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 → 화자가 농부들과 나눈 대화’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7. (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나누었을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카페 라 뉴이에 가면
가끔 고흐를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 그의 삶은 암흑이었지만
그 카페엔 지상의 어떤 대낮보다
환한 밤이 살고 있습니다.
아름의 하늘에 젖은 별 몇 개 반짝이면
그는 취기 어린 눈으로 묻곤 하지요.
세상에 빛나는 게 어디 있는가.
당신은 빛나는 세상을 보았는가.
그래요 / 다만 깊은 어둠의 동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눈부심이 있을 뿐이지요.
그 어둠 밖에선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눈부심이 있을 뿐이지요.
- 유하, 「밤의 카페에서」 -

- ① (가)의 화자 :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나는 존재예요.
- ② <보기>의 화자 : 세상에 빛나는 것은 없어요. 이런 생각이 고흐의 그림에도 드러나 있어요.
- ③ (가)의 화자 : 그렇지 않아요. 고흐는 그림을 통해 다른 존재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 ④ <보기>의 화자 : 고흐가 암흑과 같은 삶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자 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겠네요.
- ⑤ (가)의 화자 : 그래요. 저는 그의 그림을 통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존재들에게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산)

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표현은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별들이 노래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노래란 곡조를 붙여 부르는 소리나 말로, 노래 부르는 이의 사상과 감정이 그 안에 녹아 있다.

- ① 인간이 별들과 달리 주체적으로 노래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의 사상과 감정을 지닌 고유한 개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간은 같은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함께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감정을 담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⑤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의 사상과 감정을 지니지 못했더라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배곧고등학교 (경기)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대화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로 대상의 이미지를 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10. (가)에 대한 감상 중 <보기>의 밑줄 친 ㉠에 초점을 두어 감상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예술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문학 작품을 이루고 있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 ① “그림 속의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표현이 흥미로워.”
- ② “빛나라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한 운율이 느껴져.”
- ③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인식이 감동적이야.”
- ④ “괄호를 삽입해서 표현한 행은 참신한 느낌이 들어.”
- ⑤ “나무 두 그루를 의인화한 표현이 재미있어.”



탈하는 중간 계층의 관리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의미한다. 19.⑤ 20.④ 21.④ 22.④ 23.③ 24.⑤ 25.⑤ 26.① 27.㉠는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이고, ㉡는 부귀공명에 얽매인 상태를 의미한다. 28.④ 29.② 30.③ 31.③ 32.② 33.② 34.(가)는 자신의 삶을 벼슬길에 해매는 삶이라고 표현하며 반성하고, <보기>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35.② 36.④ 37.① 38.① 39.④ 40.(1) ㉠'빈 비' ㉡'사공이 없는 '빈 비'는 임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드러내어 (2) ㉠자연물을 통해서 죽어서라도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했다. ㉡'낙월'은 멀리서 임을 비추므로 화자의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구준비'는 임 가까이에서 내리며 화자의 슬픈 마음을 임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범나비'는 임이 자신인 줄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임을 좇겠다고 하므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1-(2)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1.④ 2.② 3.② 4.⑤ 5.④ 6.⑤ 7.① 8.② 9.⑤ 10.③ 11.① 12.④ 13.③ 14.④ 15.③ 16.(1) 비오는 날에는 임 씨의 일이 없어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장주에게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다. (3) 식구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이다. 17.④ 18.③ 19.④ 20.① 21.⑤ 22.② 23.⑤ 24.① 25.③ 26.④ 27.④ 28.② 29.③ 30.⑤ 31.② 32.② 33.④ 34.④ 35.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는 사회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호의호식하는 부도덕한 부유층을 비판한다.

2-(1) 산유화

1.③ 2.② 3.③ 4.② 5.④ 6.㉠ 갈 봄 여름 없이 ㉡ 작은 새 7.① 8.③ 9.② 10.② 11.① 12.① 13.② 14.⑤ 15.③ 16.③ 17.(가)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표현하여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고, (나)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여 꽃이 쉽게 지는 것과 달리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은 어렵다는 깨달음을 표현한다. 18.③ 19.② 20.②③⑤ 21.① 22.(1)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의미한다. (2) 산에는 꽃 ~네 / 꽃이 ~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네 23.(1) ㉠ 문학 작품 ㉡ 내용 ㉢ 형식 (2) 수미상관과 3음보의 배열 등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고 시를 옆으로

누이면 시의 형태가 산 모양이 되어 시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4.④ 25.③ 26.① 27.(1) 수미상관 (2) 꽃의 피고 짐을 보며 깨닫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28.⑤ 29.④ 30.④ 31.⑤ 32.② 33.④ 34.(1)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2) 화자가 꽃을 좋아하지만 '저만치' 피어 있기 때문에 화자와 꽃은 존재의 고독을 드러낸다. 35.① 36.⑤ 37.③ 38.⑤ 39.③ 40.① 41.② 42.① 43.⑤ 44.(1) (다)의 '두견'과 '구름'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형상화 된 점에서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A] 관직을 잃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연군지정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신연주지사 [B] <보기>의 화자는 독백체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의 화자는 대화체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45.① 46.③ 47.② 48.⑤ 49.⑤ 50.내용상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소재로 하고, 형식상 변형된 수미상관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51.④ 52.①

2-(1) 속미인곡

1.③ 2.④ 3.③ 4.④ 5.⑤ 6.② 7.③ 8.④ 9. (1)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2) 소극적인 낙월에 비해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이다. 10.④ 11.④ 12.② 13.③ 14.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다. 15.갑녀의 질문에 응하면서 하소연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며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실제적 중심 역할을 하는 화자이다. 16.⑤ 17.⑤ 18.① 19.③ 20.⑤ 21.(1) ㉠과 ㉡은 죽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은 소극적 애정관을, ㉡은 적극적 애정관을 드러낸다. (2) ㉡은 임의 곁에 오랜 시간, 더 가까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22.(1) (다)의 '두견'과 '구름'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형상화 된 점에서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A] 관직을 잃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연군지정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신연주지사 [B] <보기>의 화자는 독백체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의 화자는 대화체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3.⑤ 24.④ 25.④ 26.㉠ 작가가 임금에게 버림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지은 작품이라, ㉡<속미인곡>은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만, <이소>는 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27.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순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8.(1) (ㄱ) 모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ㄴ)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서 (2) 임과 떨어져 '모침 촌 자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 멀리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29.④ 30.① 31.④ 32.(1) ㉠'빈 비' ㉡사공이 없는 '빈 비'는 임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드러내어 (2) ㉠자연물을 통해서 죽어서라도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했다. ㉡'낙월'은 멀리서 임을 비추므로 화자의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구촌비'는 임 가까이에서 내리며 화자의 슬픈 마음을 임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범나비'는 임이 자신인 줄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임을 쫓겠다고 하므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33.③ 34.③ 35.⑤ 36.③ 37.⑤ 38.② 39.④ 40.④ 41.② 42.③ 43.① 44.(가)는 '차라리 죽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이다. 45.④ 46.② 47.② 48.③ 49.⑤ 50.④ 51.⑤ 52.(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지만, (라)의 화자는 임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53.③ 54.④ 55.①

2-(1) 유자소전

1.② 2.① 3.④ 4.② 5.① 6.③ 7.③ 8.⑤ 9.③ 10.④ 11.④ 12.① 13.② 14.① 15.⑤ 16.③ 17.전 18.④ 19.② 20.(1) 대구적 표현을 통해 말의 리듬을 형성한다. (2)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21.④ 22.윗글과 <보기>는 풍자가 드러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윗글에는 해학이 함께 드러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23.④ 24.⑤ 25.① 26.⑤ 27.② 28.⑤ 29.④ 30.② 31.⑤ 32.⑤ 33.피해자가 죽들에게 받는 봉변을 피하기 위한 예방한다는 의미이다. 34.⑤ 35.③ 36.① 37.④ 38.① 39.③

2-(2)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1.③ 2.⑤ 3.③ 4.화자는 소박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들에게 '빛나라'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나는 존재라는 인식과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5.(가)는 고흐의 복사화를 구매하면서 시상이 시작되고 각 부분은 시선 이동을 통해 묘사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가)와 (나)는 세상에서 소외 받는 것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6.⑤ 7.② 8.② 9.① 10.③ 11.④ 12.③ 13.⑤ 14.

④ 15.⑤ 16.별나라에도 외로운 별이 있다,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은 없다. 17.④ 18.① 19.(1) '편백나무 두 줄기 → 밀밭 앞길 → 위태한 마차 → 농부 둘 → 왼편 귀퉁이의 희미한 것(별) → 해와 달' 순서로 묘사한다. (2) 시적 화자가 "빛나라"라고 언급한 대상은 별들, 편백나무, 보리밭, 외로운 별, 농부들이며 그 대상들의 공통점은 모두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20.①④ 21.⑤ 22.'갑갑하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이다. 23.④ 24.③ 25.(1)저 별이 환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2)세상의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이 난다는 주제의식을 표현한다.

2-(2) 뿌리 깊은 나무

1.① 2.④ 3.⑤ 4.④ 5.① 6.② 7.<보기>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지만, [A]는 지시문, 대사, 효과음 등으로 상황이 제시된다. [A]는 <보기>보다 인물의 감정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8.② 9.① 10.(1) (ㄱ)표의문자 (ㄴ)표음문자, (2) 파급력, (3) 이도는 표의문자인 한자와는 달리 표음문자인 새로운 글자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자라고 생각한다. 11.② 12.가르치고 교화해도 인간의 자질을 변화시켜 선한 본성에 도달할 수 없다. 13.③ 14.⑤ 15.② 16.몽타주 17.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짧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다. 18.④ 19.③④ 20.④ 21.② 22.(1) ㉠에 적절한 연출 방법은 화면 분할로 화면 분할은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방법이다. (2) 화면 분할을 사용해 이도와 가리온의 모습을 한 화면에 보여 줌으로써 가리온과 이도의 대결구도를 부각한다.

- 끝 -

1-(1) 봄은 오는 밤

1.⑤

▶도치법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넣어둬, 패턴 공략◀

계절감 (★)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2.③

▶너(네)라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넨.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정적 vs 동적

- ㄱ. 정적: 차분, 고요, 내향적 등
- ㄴ. 동적: 활발, 명랑, 생기 발랄, 외향적 등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3. 의인법 vs 활유법 (★★★)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3.①

▶윗글에선 나무를 너(네)로 지칭하며 의인화하고, <보기>에선 산봉우리를 부르며 의인화함.

김영랑, <오월>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봄날의 생명력
*해제: 이 시는 봄날의 자연 풍경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화자의 눈은 '들길'에서부터 '마을, 들, 바람, 햇빛, 보리, 피꼬리, 산봉우리'를 향해 이동해 가면서, 이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여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마을로 통하는 황톳길은 붉은색으로,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색채 대비는 토속적인 마을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아울러 봄날의 생동감을 환기시켜 준다. 또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의 보리가 햇빛을 받는 모습에서도 봄의 생명력이 드러난다. 이런 생명력은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허리통' 등에 나타난 유음 'ㅇ'의 사용으로 운율감 있게 표현된다. 이어서 화자는 하늘을 정답게 나는 암수의 피꼬리를 통해 약동하는 봄날의 생기를 형상화한다. 특히 수놈이 암컷을 쫓아간다고 말함으로써, 봄이 지닌 새로운 생명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봄이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산봉우리를 여인으로 의인화함으로써 대지의 생명력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봄의 생동감 넘치는 정경에 대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정경 자체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강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옳다, 1등급 조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데 수험생들에겐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옳, 헛갈리지 마!◀

애상적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사랑스러운 감정 (×)

4.①

▶[A]와 ①은 대상에 대해 예찬함.

5.②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이 역동적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ㄱ.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ㄴ.선경후정: 경치+정서

ㄷ.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2. 역동적(★)

: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님. 움직임(동사)과 관련된 표현이 일단 있어야 하지만 시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의 시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3.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4.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6.④

▶㉠은 내리는 눈이며, ㉡은 사람의 눈이거나 초목의 싹이므로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음.

7.④

▶④에는 빗글에 사용된 의인법이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수사법(★)

1)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2)강조법: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열거법

3)변화법: 도치법, 설의법, 인용법, 대구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9.⑤

▶'밤'은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 하얀 눈과 대비되어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10.④

▶삶의 지혜하고는 상관없음.

▶응, 헛갈리지 마!◀

모호(애매) vs 중의 vs 모순 (★★)

*모호(애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11.⑤

▶위 시와 <보기>는 대상을 예찬하기에 ⑤가 가장 적절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12.④

▶너(네)라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15.②

▶시적 긴장감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적 긴장감 (★)

:표현 기교가 사용된 어려운 시어 해석에 집중할 때 생기는 마음가짐.

1) 시어의 의미 파악이 너무 쉬우면 시적 긴장감이 생기지 않음

2) 보통 '역설법, 반어법, 대조법' 이 사용되면 시적 긴장감이 생긴.

3) <갈등>에 의해 형성되는 <소설의 긴장감>과는 다른 개념임

2. 시의 심상과 감각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3.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